

멜로 영화 '불후의 명작' 다시 만나다

광주독립영화관 12월까지
'한국영화클래식' 매달 1편 상영
'미워도 다시 한번'·'봄날은 간다'
시대별 주옥같은 작품 볼 기회



1964년작 '맨발의 청춘'



1998년작 '8월의 크리스마스'

시대가 흐른 뒤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작품을 '불후(不朽)의 명작'이라 한다. 예술의 다양한 장르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 명작들이 많다. 최근 영화계에도 재개봉 열풍이 불면서 지난 시절의 향수와 추억에 젖는 팬들이 적지 않다. 1960년-2000년대 한국 멜로영화 클래식들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편의 클래식 한국멜로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기획은 2021년부터 독립영화관이 진행해 온 '한국영화클래식' 기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추억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기획전의 포문은 '맨발의 청춘(1964)'이 연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 5일(오후 3시), 8일(오후 7시) 상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특히 5일은 실버관람객, 8일은 젊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영해, 전 세대를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맨발의 청춘'은 신성일, 엄앵란이 주연한 1960년대 최고의 히트작으로 MZ세대에게 동명의 노래로 더 익숙한 작품이다. 6·25라는 시대의 격랑에 삼류 강패가 된 '두수(신성일)'와 부잣집의 격관 딸 '요안나(엄앵란)'의 신분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를 그렸다. 두수는 건달 두목(이예춘)의 지시를 받고 밀수 시계를 운반하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대생들을 목격한다. 의협심에 여대생들을 도와주려 나섰다 시계를 흘려 경찰의 추적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대생 중 한명인 외교관의 딸 요안나와 사랑에 빠진다. 요안나의 부모님은 이들의 관계를

반대하고 요안나를 태국에 보내려 한다. 작품은 당시 60년대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정춘영화이다. 여주인공인 엄앵란은 문화, 남정임과 함께 60년대 트로이카로 평가받은 만큼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이어 8월부터는 '미워도 다시 한번(1968)'을 비롯해 '우묵배미의 사랑(1990)', '8월의 크리스마스(1998)', '봄날은 간다(2001)', '오아시스(2002)' 등이 연속 상영될 예정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원(한석규)'은 초원사진관을 운영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사진관에 방문한 주지단속요원 '다림(심은하)'은 단속차량 필름을 맡기러 왔다가 정원과 사랑에 빠진다. 다림의 데이트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잔잔한 수

채와 같은 감성을 선사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영화 속 명대사는 심금을 울린다. 두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거나 벤치에서 소프트콘을 함께 먹는 장면은 오늘날 연인들의 일상 속 모습과 닮았다. 실제로 군산에 있는 영화 속 공간 '초원사진관'은 관광 명소로 알려져 MZ세대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광주영화영상인대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연속기획전을 통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멜로영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는 다르지만 영화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 있어 서로 다른 작품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 청년문화기획자, 지역 문제 고민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생태 위기 등 논의



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의 발대식. <전남문화재단 제공>

전남문화재단이 청년 문화기획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사.가.지(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는 6개월간 기발한 실험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획됐다. 전남도민 중 만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지역소멸을 막고 청년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2일 나주에서 1박 2일간 발대식을 개최한 후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펼쳤다. 또한 행정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킹 강화, 생태 위기와 지역문제 논의 등을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김새어나씨는 "이제 막 전남 고흥에 터를 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적 활동을 지지해 주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참가자들과 순수하게 문화기획에 대한 열정으로 관계 맺는 이번 사업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여수 돌산마을 청년 오진식씨도 "어촌마을에 거주하며 왜가리로 인해 어업 피해가 커 왜가리 퇴치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업설명회와 심의를 통해 퇴치가 아니라 공존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공모를 통해 총 18명의 청년을 선발해 연 1천만 원의 프로젝트 비용과 월 18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노자 가르침으로 보는 광주비엔날레 '주제'

양희석 교수 내일 주제확장토크

노자의 가르침으로 보는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노자 가르침을 토대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 5일(오후 5시)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리는 주제확장토크 강연은 양희석 전남대 중문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양 교수는 '정언약반 正言若反: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제목 아래,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 '물처럼 부드럽

고 여리게'가 차용한 노자 '도덕경' 78장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임수영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보조 큐레이터가 대담자로 참여하는 이번 강연에서 양 교수는 노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전시 주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할 예정이다. 중국 고전문학(희곡)을 전공한 동양학자 양희석 교수는 한국 중국희곡학회 회장과 중국 인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시민 대상의 '노자', '장자'를 강독하는 '행인학당 동양고전 강좌'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애뜻한 추억 속 '동네 슈퍼'

여수 출신 황종권 시인, 에세이집 '방울 슈퍼 이야기' 출간

대형 마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슈퍼들이 있었다. 그곳에선 주류나 담배, 과자, 일상 용품을 팔았는데 어린이들부터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슈퍼는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닌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했다. 사소한 동네 소식들이 슈퍼를 중심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사라진 동네 슈퍼를 모티브로 한 에세이집이 나왔다. 여수 출신 황종권 시인이 펴낸 '방울 슈퍼 이야기' (겉는사람)는 현재를 지향하는 빛나고 애뜻한 추억들을 소환한다. 시인은 국동에 있는 유일한 구멍가게인 방울 슈

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무엇보다 작은 슈퍼집 아들이었던 시인은 당시 동네 꼬마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슈퍼집 아들로 유년기를 보낸 것은 글을 업으로 삼는 이에게는 '대단한' 행운일 수도 있다. 슈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는 모두 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방울 슈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따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과거 하나에 울고 웃던 어린 시절을 소환한다. "장마철이면 방이 운다고, 연탄을 때웠다. 습기를 잡겠다고 불을 놓는 것인데, 그 불은 우는 아이를 뚝 그치게 하는 맛이 있었다. 연탄불에 구워 먹 는 쫄면의 맛. 누군가에겐 맛난 달콤한 맛이겠



지만, 나에게서는 눈물을 뉘어 주는 맛이였다." 시인이 된 슈퍼집 아들은 삶은 작은 추락의 연속이며 살아 간다는 것은 끝없는 바닥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방울 슈퍼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마음은 보태 준 수호신 이웃들이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희망의 좌표를 찍어준 벼들이 있었다. 또한 사소한 일상은 언제고 추억이 되어 생을 지탱해 준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시인은 "일이 녹록지 않고 그리는 자리가 육신 거릴 때 방울 슈퍼 이야기가 편지처럼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사 찾아요

7~10일까지 도슨트 모집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개막해 11월 7일까지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곳곳에서 열린다.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본전시(테크놀로지, 라이프스타일, 컬처, 비즈니스 테마)를 비롯해 특별전, 기념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할 도슨트를 모집한다. 도슨트는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전시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 외국인(한국어 구사)이면 된다. 비엔날레, 미술관 등 도슨트 경험자,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능력 가능자(전시 해설이 가능한 수준)는 우대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8월 중 기초교육, 심화교육, 현장학습을 거쳐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희망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7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